



2009년 ESCO자금 지원규모가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와 함께 산업의 활성화와 정직하고 공명한 ESCO자금 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ESCO Partner 코너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실 홍순용 실장을 만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정부지원금 운용방안과 ESCO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취재 편집실 사진 이동진

‘투명성과 균형’이 어우러진 ESCO자금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실
홍순용 실장

ESCO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실은 ESCO 자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더불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취약하고 담보 여력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 ESCO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용자와 ESCO 업체 모두가 에너지관리공단의 고객입니다. 두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ESCO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SCO사업의 실효성과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자세히 소개하는 ESCO사업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맡고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금운용실 홍순용 실장의 말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ESCO사업의 신기술과 투자 가치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활동 이외에도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관리자 교육을 여는 등 각종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ESCO사업 발전을 위해 양·질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한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산·학·연이 함께 기반을 다져야 하는 메커니즘이 ESCO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은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말에도 지식경제부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종합설명회’를 전국에서 순회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총 5,827억원 규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자금추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추천위원회는 자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자금대여시 공사진척에 대한 현장확인 후 대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 홍순용 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들이 얻기 힘든 ESCO 관련 정보를 모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담보 대출 등의 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CDM 등록 방법, Energy 절약 진단 등 각종 정보를 패키지로 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 참여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이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온실가스감축실적 검증전문기관, 에너지진단전문기관들이 참석해 투자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에 대한 개별상담도 진행되었다.

사후관리 강화...투명한 자금운용의 시작

홍순용 실장은 지난 3월 19일에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하는 ESCO 정책자금 현황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업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90년대 말에 5억원 미만을 기록했던 자금 지원현황은 8-1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설비면에서도 사업 초기 조명개체 사업 등 단순설비 위주에서 공정개선 열병합 및 폐열회수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 한 투자설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어 좀 더 많은 ESCO 업체가 자금을 지원 받아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93년 2008년까지 11,603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 받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억원 지원시 연간 약 38백만원(96toe)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운용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지적 받게 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내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자금추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추천위원회는 자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자금대여시 공사진척에 대한 현장확인 후 대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홍순용 실장은 변경된 자금운용 지침에 따라 오히려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ESCO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저희 공단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금운용을 위해서도 매 과정마다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SCO사업 자금지원 내용

- 2009년도 지원예산 : 1,350억원
- 지원비율
 - 대기업 : 80%이내
 - 중소기업 또는 성과보증계약 : 100%이내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자당 270억원 이내
(동일 투자자당 1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전기설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설비 및 열병합발전)
- 대출이자
 - 고정금리 : 3.00%
 - 변동금리 : 2.50% (2/4분기 기준)

- 자금지원 대상설비 추가 : 세라믹메탈할라이드램프시스템
- 상환조건 변경 : 성과배분계약의 경우 성과배분기간 종료시 융자금 상환 의무화 (계약기간 종료후 다음 분기 정기상환일까지)
- 지원조건 조정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조정 (300억원 → 270억원)
 -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60% → 70%)
- 기타
 - ESCO 신용대출(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폐지
 - 일반관리비/이윤 등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의 가성비를 적용



- 추천심사 강화 :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추천위원회(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자금추천
- 사후관리 강화
 - 자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확인 실시
 -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자금대여시 공사진척에 대한 현장확인 후 대여실시
- 예산 조기집행
 - 최초자금 인출시 추천금액의 10%이상 인출 의무화
 - 최초자금 인출시한 연장 (2개월 → 3개월)
 - 선금금 기성 인정한도 확대 (추천금액의 50% 범위)

자금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시설에 대해 공단의 현장확인이 추진되고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도 실시된다.

ESCO = 그린 오션이라는 인식 알릴 것

올해 개정된 주요 자금지원 지침에 따르면 중소 ESCO 지원이 확대돼 전체 ESCO 자금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기존 60%에서 70%로 늘어났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비율도 대기업 수준(80%)으로 축소돼 이에 따른 여유재원이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된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의 목표. 홍순용 실장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목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에너지절약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임원진을 만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 임원진들을 만나면 지금은 ESCO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ESCO사업으로 생기는 뛰어난 기술을 통해 투입된 자본보다 에너지절감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투자를 약속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2009년 상반기 내에

고효율 LED 조명 인증제를 도입해서 보급에 박차도 가할 것입니다. 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기자재 인증 활성화에 따라 ESCO 자금을 활용한 보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정부에서는 투자사업을 늘리는 데 실질적인 제도도 마련했다며 ESCO사업 용자기간이 검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기설비의 경우 투자비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사업은 ESCO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조정 검토하고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성과배분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다음 분기 정기상환일까지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순용 실장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 주요 사업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고려, 상반기 중 자금지원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금 인출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자금은 추천금액의 10% 이상을 인출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ESCO가 그린 오션임을 알리는 에관공. 그들의 노력 대로 올해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더 많은 ESCO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